

11/4/18

설교 제목: 영생을 얻으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본문: 요한일서 5 장 5-21 절

-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요일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절관주** 요 16:13
- (요일 5: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 (요일 5: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 (요일 5: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 (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절관주** 요 5:24
-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 (요일 5: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 (요일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 (요일 5: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 (요일 5:18)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 (요일 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 (요일 5: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머지 부류는 이런 저런 생각없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 서로 비슷한 처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들의  
 종국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 만큼이나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을  
 하고 산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개념없이 산 사람들은 유향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져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치며 다시 한 번 교인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 이단 등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그들이 처음 사도들에게 들은 말인 복음만을 믿을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세상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일 5: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두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을 경우 그 증언을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에서는 두 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람의 증언도 증거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일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인 예수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성령 물 피 셋이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왜 셋이 증언한다고 했을까요?

(요일 5: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요일 5: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두 세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그 증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율법에 의거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하신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 물, 피, 이 셋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가 또 있는데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내재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내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교사 이단 등 적그리스도가 난무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일부 성도들은 가기에 빠져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놓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 온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적그리스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그들의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어 갑니다.

이런 교회 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열거합니다.

1.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신음 소리 하나에도 응답을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는 자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태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세상 사사로운 것들이 마음에 들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죄 범하는 형제를 보면 기도해 구하라고 합니다.

(요일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일 5: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렇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 범하게 되는 일반적인 죄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가 만약 이러한 죄를 범하거든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범죄한 형제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배교나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죄, 성령을 훼방한 죄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무지나 연약 또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죄를 진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2. 영생을 받은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일 5: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3. 영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단의 세력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4. 영생을 받은 자들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일 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요일 5: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은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자 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은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들의 말을 믿지 말고 사도들에게 처음 들었던 말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 사람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도들이 처음 전한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 후에 있긴 무엇이 있느냐고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워 힘든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요?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두에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